

수업 고전시가의 재구성

-자연친화-

메모 활용법

모의고사 실력 향상을 위해 평상시 문학과 독서를 분석하도록 하자.

■ 시

화자, 청자, 시적 대상, 상황, 정서, 태도를 찾는다.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면 대신할 수 있는 시어를 찾는다)

■ 소설, 극

인물 관계도, 사건, 배경, 서술 방식, 상징적 소재

■ 수필

인물, 사건, 배경, 깨달음

■ 독서

단락 정리 및 내용 전개 방식

미니 모의고사 푸는 방법

■ 1주일에 5일씩 풀도록 한다.

평일에는 1-5회 문제를 풀고, 토요일에는 틀린 문제 오답을 하도록 한다. 일요일에는 문법을 복습하자.

■ 문학과 독서 지문은 반드시 시간을 체크하여 시간을 관리하도록 한다.

■ 채점은 그날 바로 한다.

■ 모든 문제의 근거는 지문 속에 있다. 반드시 정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아 표시하도록 한다.

■ 틀린 문제는 해설을 바로 보지 말고 맞힐 때까지 다시 풀도록 한다. 정답을 찾았을 때는 해설지와 자신의 근거를 비교하며 확인한다.

■ 틀린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다음에 어떻게 풀어야 맞힐 수 있는지 고민하자. 잘못된 풀이법이 있다면 수정하자.

■ **학생들끼리 복사해서 공부하는 건 OK! 단, 수업용, 과외용으로는 무단 복사 및 배포 금지!**

미니 모의고사

수특 고전시가 -자연친화-

총 소요 시간

맞은 개수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5년 4월

(가)

〔 산슈간 바회 아래 뛰집을 짓노라 하니

[A] 그 물론 늙들은 웃는다 혼다마는

〔 어리고 하암*의 뜻되는 내 분인가 흐노라.

〔 보리밥 푹눅물을 알마초 머근 후(後)에

[B] 바윗긱 몃긱의 슬긱지 노니노라.

〔 그나쁜 녀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랴.

〔 누고셔 삼공(三公)도곤 낫다흐더니 만승(萬乘)*이 이
만흐랴.

[C] 이제로 헤어든 소부(巢父) 허유(許由)* | 낙똥더라*

〔 아마도 임천(林泉) 한흥(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랴.

〔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히 아르실샤

[D] 인간 만사(人間萬事)를 혼 일도 아니 맞더

〔 다만당 다툼 이 없는 강산(江山)을 지키라 흐시도다.

- 윤선도, 「만흥(漫興)」 -

* 하암 : 향암(鄕巖). 시골에 사는 무식한 사람.

* 만승 :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 소부와 허유 : 임금직을 거절하고 자연 속에 살았다는 중국의 대표적인 사람.

* 낙똥더라 : 약똥더라.

(나)

긱 괴여 닉은 술을 갈건(葛巾)으로 밧타노코, 곳나모
가지 것저, 수 노코 먹으리라. 화풍(和風)이 건똥 부러 녹
수(綠水)를 건너오니, 청향(清香)은 잔에 지고, 낙홍(落紅)
은 옷새 진다. 준중(樽中)이 뷔엿거든 날드려 알외여라. 소
동(小童) 아히다려 주가(酒家)에 술을 물어, 얼운은 막대
집고, 아히는 술을 메고, 미음 완보(微吟緩步)흐야 시넛긱
의 호자 안자, 명사(明沙) 조흔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청류(清流)를 굽어보니, 썬오느니 도화(桃花) | 로다. 무릉
(武陵)이 갓갑도다. 저 미이 권 거인고.

송간(松間) 세로(細路)에 두견화(杜鵑花)를 부치 들고,
봉두(峰頭)에 굽피 올라 구름 소긱 안자 보니, 천촌 만락
(千村萬落)이 곳곳이 버러 잇넛. 연하 일휘(煙霞日輝)는
금수(錦繡)를 재펢는 듯.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유여
(有餘)홀샤.

- 정극인, 「상춘곡」 -

정리

1. (가)~(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는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규칙적 음보의 반복과 대구 표현을 통해 화자의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작품 속에 청자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대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 ⑤ 동일한 시적 대상을 지칭하는 다양한 시어로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2. (나)에 사용된 시어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뿌집’과 [B]의 ‘뜻늬물’은 화자의 소탈한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소재라고 할 수 있어.
- ② [B]의 ‘바회’는 화자가 자연을 즐기는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고, [A]의 ‘바회’는 화자가 기거하는 위치를 나타내는 시어라고 볼 수 있어.
- ③ [C]의 ‘낙뎡더라’는 대상의 현명함을 표현하는 시어이고, [A]의 ‘웃는다’는 화자에 대한 타인의 부정적 태도를 표현하는 시어야.
- ④ [C]의 ‘만승’은 화자가 부러움을 느끼는 대상이고, [D]의 ‘인간 만사’는 화자가 거리를 두려고 하는 대상이야.
- ⑤ [D]의 ‘다툼 이 없는 강산’에는 화자가 세속과 자연을 대조적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는데, 이는 [C]에서 ‘이만하랴’처럼 자연에 심취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반영되고 있어.

3. (다)를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세속적 삶에 대한 미련을 드러내고 있군.
- ② 자연을 통해 삶의 교훈을 이끌어내고 있군.
- ③ 대상에 동화된 화자의 흥취를 드러내고 있군.
- ④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군.
- ⑤ 현실의 어려움을 자연 현상에 빗대어 토로하고 있군.

4. <보기>는 (가)의 창작 배경인 금쇄동을 답사하고 쓴 글이다. <보기>와 관련지어 (가)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07년 9월]

<보기>

금쇄동 일대는 해남 윤씨 고택(古宅)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에 있어 아무도 그 위치를 모르다가 최근에서야 흔적이 발견된 곳이다. 윤선도가 여기 은거하기 시작한 때는 반대파의 탄핵을 받아 유배되었다가 돌아온 직후였다. 그는 가문의 일마져 아들에게 맡기고 산속에서 십여 년간 혼자 지냈다. 살 집은 물론 정자와 정원까지 조성해 놓고 날마다 거닐며 놀았다고 한다.

- ① ‘산수간’은 관념적인 표현으로만 생각했는데, 실제 공간일 수도 있겠군.
- ② ‘바위 끝 물가’는 정원의 바위와 연못을 가리킬 수도 있겠군.
- ③ ‘그 남은 여남은 일’은 금쇄동에서 산수를 즐기는 일을 가리킬 수 있겠군.
- ④ ‘먼 뵈’는 윤선도가 유배 체험에서 입은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었겠군.
- ⑤ ‘다툼 이 없는 강산’은 정쟁이 벌어지는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6년 10월

(가)
 ┌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A] 그 모른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 어리고 향암(鄉闇)*의 뜻에는 내 분(分)인가 하노라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초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슬카지 노니노라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러울 줄 있으라

잔 들고 혼자 앉아 먼 뒀을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하라
 말씀도 웃음도 아녀도 못내 좋아하노라

* 향암(鄉闇) : 시골에서 지낸, 사리에 어둡고 어두운 사람
 - 윤선도, 「만흥(漫興)」 -

(나)
 강호(江湖) 한 꿈을 꾸언 지도 오래러니 구복(口腹)이 위
 루(爲累)하여 어즈버 잊었도다 첩피기옥(瞻彼淇澳)한데 녹
 죽(綠竹)도 하도 할사 유비군자(有斐君子)들이 낚대 하나
 빌려주오 노화(蘆花) 깊은 곳에 명월청풍(明月淸風) 벗이
 되어 임자 없는 풍월강산(風月江山)에 절로절로 늠으리라
 무심(無心)한 백구(白鷗)야 오라 하며 말라 하라 다툼 이
 없을손 다만 이뿐인가 여기노라 무상(無狀)한 이 몸에 무
 슌 지취(志趣) 있으리마는 두세 이랑 밭논을 다 묵혀 던져
 두고 있으면 죽(粥)이오 없으면 굶을망정 남의 집 남의 것
 은 전혀 부러워 말겠노라 내 빈천(貧賤) 싫다 여겨 손을
 헤다 물러가며 남의 부귀(富貴) 부러워하여 손을 친다 나
 아오라 인간(人間) 어느 일이 명(命) 밖에 삼겼으리 빈이
 무원(貧而無怨)을 어렵다 하건마는 내 생애(生涯) 이리하
 되 설운 뜻은 없노왜라 단사표음(簞食瓢飲)을 이도 족(足)
 히 여기노라

- 박인로, 「누항사」 -

정리	
----	--

5. <보기>에 근거하여 (가)를 해석해 보았다. 적절한 해석으
 로 보기 어려운 것은? [3점]

<보기>

사대부 시인들의 자연 예찬은 벼슬살이에 대한 그들의 인
 식이나 태도와 관련이 있다. 자연 예찬의 노래는 벼슬살이
 를 하는 과정에서 겪은 쓰라림, 즉 정치적 시련, 세월의 흐
 림에 따라 어지럽게 변하는 현실, 그리고 그에 따라 변신
 을 거듭하는 인간 무리 등에서 벗어나고 싶은 반발로 설명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노래에는 ‘벼슬 따위
 는 할 수 있어도 안 한다.’는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과 자
 연 속에서 도를 추구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가 들어있
 다.

- ① ‘산수’, ‘바위’ 등으로 구체화된 자연은 세월의 흐름에도 변
 하지 않는 불변성의 표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② 자신을 ‘어리고 향암’이라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벼슬살이에 대한 경계의 의도가 담겨
 있다.
- ③ ‘보리밥 풋나물’은 벼슬을 추구하던 과정에서 작가가 겪은
 정치적 시련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그 남은 여남은 일’을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여 자연에
 서 도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자부를 드러내고 있
 다.
- ⑤ ‘뒀’을 바라보는 즐거움을 ‘님의 말씀과 웃음’보다 우위에
 둔 것은 변신을 거듭하는 인간에 대한 반발과 관련하여 해
 석할 수 있다.

6. (나)의 화자에게 ‘강호’가 의미하는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복이 위루’함으로 인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공간이다.
- ② ‘두세 이랑 밭논’을 묵혀 던져두고 찾아가는 공간이다.
- ③ 주어진 ‘명’을 받아들이면서 자족하려 하는 공간이다.
- ④ ‘빈이무원’에 대한 지향이 담겨 있는 공간이다.
- ⑤ ‘설운 뜻’에서 오는 시름을 위로받기 위해 찾아가는 공간이다.

7. <보기>에 근거할 때, (가)의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보기>

(가)의 [A]는 대개의 시조와 같이 표면상 ‘긴장 조성 - 긴장 고조 - 긴장 해소’의 의미 구조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구조는 주체와 세계와의 갈등 즉, 가치와 지향을 두고 ‘나’와 ‘나’를 둘러싼 세계와의 갈등을 제시하고 이를 해소하는 전개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 ① ‘떠짐’을 짓는 ‘나’의 행위는 긴장을 조성한다.
- ② ‘나’의 행위에 대한 ‘남’들의 웃음은 긴장을 고조시킨다.
- ③ ‘나’와 다른 가치를 가진 세계인 ‘남’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다.
- ④ ‘분수’를 들어 주체의 정당성을 확인하면서 갈등을 해소한다.
- ⑤ ‘나’의 행위와 ‘남’들의 웃음을 절충함으로써 긴장이 해소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4년 03월

(가) 제비는 물을 차고, 기러기 무리져서 거지 중천(居之中天)에 높이 떠서 두 나래 훨썌 펴고, 펄펄펄 백운 간(白雲間)에 높이 떠서 천리 강산 머나먼 길을 어이 갈꼬 슬피 운다.

원산(遠山)은 첩첩(疊疊), 태산(泰山)은 주춤하여, 기암(奇巖)은 층층(層層), 장송(長松)은 낙락(落落), 에이구부러져 광풍(狂風)에 흥을 겨워 우줄우줄 춤을 춘다.

층암 절벽상(層巖絶壁上)의 폭포수(瀑布水)는 쿵쿵, 수정렴(水晶簾) 드리운 듯, 이 골 물이 주루룩, 저 골 물이 쫄쫄, 열에 열 골 물이 한데 합수(合水)하여 천방저 지방저 소쿠라지고 평퍼져, 넉출지고 방울져, 저 건너 병풍석(屏風石)으로 으르렁 쿵쿵 흐르는 물결이 은옥(銀玉)같이 흘러지니, 소부허유(巢父許由) 문답하던 기산 영수(箕山潁水)*가 예 아니냐.

- 「유산가(遊山歌)」 -

* 기산 영수(箕山潁水) : 중국 요임금 때 소부와 허유가 명리(名利)를 피하여 은거한 곳.

(나)

산수간(山水間)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어리고 하얌*의 뜻에는 내 분(分)인가 하노라

<제1수>

보리밥 푼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後)에
바위 끝 물가에 슬카지 노니노라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릴* 줄이 있으라

<제2수>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알으실사
인간 만사(人間萬事)를 한 일도 아니 맡겨
다만당 다툼 이 없는 강산(江山)을 지키라 하시도다

<제5수>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分)으로 누었느냐
임금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값고자 하여도 하울 일이 없여라

<제6수>

- 윤선도, 「만흥(漫興)」 -

* 하얌 : 시골에 사는 건문이 좁고 어리석은 사람.

* 부릴 : 부러워할.

정리

8.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자연물을 매개로 자아를 성찰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순차적인 계절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낭만적인 분위기를, (나)는 애상적인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자연에서 비롯된 화자의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관조적인 자세로 대상의 의미를 탐구하고 있다.

9. (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대구를 활용하여 리듬감을 만들어 내고 있다.
- ③ 비유적 표현으로 대상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④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의성·의태어를 다채롭게 구사하여 생동감을 살리고 있다.

10. <보기>의 관점에서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삼가 생각하건대 선비의 처세는 나아감에 있어 떳떳하지 못해도 진정 아니 될 것이며 물러남에 있어 떳떳하지 못해도 진정 아니 될 것입니다. 나아감엔 마땅히 이익을 탐한 것이 아닌가 경계해야 할 것이며 물러남엔 마땅히 세상을 잊은 것이 아닌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 ① ‘알맞게 먹’고 ‘슬카지 노니’는 것은, 물러난 ‘나’가 선택한 삶의 방식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그 남은 여남은 일’은 이익을 탐하는 것으로 ‘나’가 경계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③ ‘성이 게으르’다는 것은 물러남에 있어 떳떳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④ ‘나’는 물러남으로 인해 ‘다툼 이’와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
- ⑤ ‘임금 은혜’를 ‘값고자’ 하는 태도는, ‘나’가 세상을 잊은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5년 04월

세상의 버린 몸이 시골에서 늙어 가니
바깥 일 내 모르고 하는 일이 무엇인고
이 중의 우국성심(憂國誠心)은 풍년을 원하노라.
<제1수>

농인(農人)이 와 이르되 봄 왔네 밭에 가세
앞집의 쟁기 잡고 뒷집의 따비* 내네
두어라 내 집부터 하라 남하니 더욱 좋다.
<제2수>

여름날 더운 적의 달구어진 땅이 불이로다
밭고랑 매자 하니 땀 흘러 땅에 떨어지네
어사와 입립신고(粒粒辛苦)* 어느 분이 아실까.
<제3수>

가을에 곡식 보니 좋기도 좋을시고
내 힘의 이룬 것이 먹어도 맛이로다
이 밖에 천사만종(千駟萬鍾)*을 부러 무엇하리오.
<제4수>

밤에는 새끼를 꼬고 낮에는 띠를 베어
초가집 잡아 매고 농기(農器) 줌 손 보아라
내년에 봄 온다 하거든 결의 종사(從事)* 하리라.
<제5수>

새벽빛 나오자 백설(百舌)*이 소리한다
일어나라 아희들아 밭 보러 가자꾸나
밤사이 이슬 기운에 얼마나 길었는가 하노라.
<제6수>

㉠ **보리밭** 지어 담고 명아주 국을 끓여
배끓는 농부들을 진시(趁時)예* 먹여라
아희야 한 그릇 다오 친히 맛 보아 보내리라.
<제7수>

서산에 해 지고 풀 끝에 이슬 맺힌다
호미를 둘러 매고 달 지고 가자꾸나
이 중의 즐거운 뜻을 일러 무엇하리오.
<제8수>

- 이휘일, 「전가팔곡(田家八曲)」 -

- * 따비: 풀뿌리를 뽑거나 밭을 가는 농기구의 일종.
- * 입립신고(粒粒辛苦): 낱알마다 맺힌 수고로움.
- * 천사만종(千駟萬鍾): 여러 말이 끄는 수레와 많은 봉록.
- * 종사(從事): 농사일을 시작함.
- * 백설: 온갖 새.
- * 진시(趁時)예: 진작에. 제때에.

정리	
----	--

1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구법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설의법을 활용하여 삶의 깨달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명령형의 문장을 활용하여 구체적 행동을 지시하고 있다.
- ④ 청유의 방식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행동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⑤ 자문자답의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안타까움을 부각시키고 있다.

12. <보기>는 윗글을 자료로 한 수업의 일부이다. 학생들의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선생님: 이 작품은 제1수는 서사로, 제2수부터 제5수는 ‘춘-하-추-동’으로, 제6수부터 제8수는 ‘새벽-낮-저녁’으로 구성되어 있어 아래와 같이 구조화할 수 있어요.

제1수	제2수~제5수	제6수~제8수
[A]	[B]	[C]

자, 이제 작품을 자세히 읽고 이 작품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서로 말해 볼까요?

- ① [A]에는 [B]와 [C]의 시간을 통해 실현하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 있어.
- ② [B]에는 사계절에 따라 ‘시작-노고-결실-준비’로 조망되는 농사의 과정이 드러나 있어.
- ③ [B]는 봄부터 겨울을 거쳐 다시 봄으로 이어지는 시간의 순환성을 바탕으로 둔 것이라 할 수 있어.
- ④ [C]는 각 수마다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확대해 가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어.
- ⑤ [C]는 하루 동안의 시간을 통해 농촌의 일상을 드러내고 있어.

13. 윗글의 ㉠와 <보기>의 ㉡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보리밥** 꽃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서 실컷 노니노라.
 그 밖의 여남은 일이야 부러워할 줄이 이시라.
 - 윤선도, 「만흥(漫興)」 중

- ① ㉠, ㉡는 모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대상이다.
- ② ㉠, ㉡는 모두 화자의 정서와 대비되는 대상이다.
- ③ ㉠는 자연에서 느끼는 흥취를, ㉡는 노동의 기쁨을 드러낸다.
- ④ ㉠에는 농부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고, ㉡에는 화자의 소박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⑤ ㉠에는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가, ㉡에는 자신의 삶에 대해 고뇌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14. <보기>는 윗글에 대한 학습 자료이다. 이를 참고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자료1] 작가의 삶
 이휘일은 조선 중기의 유학자로 벼슬길에 나서지 않고 농촌에서 생활하였다. 농민의 삶을 공유하면서도 유교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대부의 소임을 외면하지 않았다.

[자료2] ‘서전가팔곡후’에서 작가가 창작 동기를 밝힌 글
 작가는 ‘서전가팔곡후(書田家八曲後)’에서 ‘농사를 업으로 삼는 사람은 아니지만 전원에서 생활하면서 체험하고 알게 된 것을 노래로 나타낸다. <중략> 아이들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여 때때로 들으며 스스로 즐기려 한다.’라고 하며 이 작품의 창작 동기를 밝혔다.

- ① [자료1]을 보니, <제1수>에는 농촌에서 생활하면서도 풍년을 이루어 유교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대부의 소임이 나타나 있군.
- ② [자료1]을 보니, <제2수>에는 농민들과 상부상조하는 모습을 통해 농민과 삶을 공유하는 작가의 모습이 드러나 있군.
- ③ [자료1]을 보니, <제6수>에는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당시 유학자로서의 학문에 대한 열정을 드러내고 있군.
- ④ [자료2]를 보니, <제3수>에는 전원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노동의 어려움을 인정하는 작가의 생각이 드러나 있군.
- ⑤ [자료2]를 보니, <제4수>에는 수확한 곡식을 보고 기뻐하는 화자의 모습에는 전원에서 생활했던 작가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08년 09월

(가)

송간(松間) 세로(細路)에 ㉠두견화(杜鵑花)를 부치들고
봉두(峯頭)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 보니,
천촌만락(千村萬落)이 곳곳에 펼쳐져 있네.
연하일휘(煙霞日輝)는 금수(錦繡)를 펴 놓은 듯,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유여(有餘)할사.
공명(功名)도 날 꺼리고 부귀(富貴)도 날 꺼리니,
청풍명월(淸風明月) 외에 어떤 벗이 있사올꼬.
단표누항(簞瓢陋巷)에 헛된 생각 아니 하네.
아모타 백년행락(百年行樂)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 정극인, 「상춘곡(賞春曲)」 -

(나)

헛된 이름 따라 허덕허덕 바빠 다니지 않고,
평생 물과 구름 가득한 마을을 찾아다녔네.
따스한 봄 잔잔한 호수엔 안개가 천 리에 끼었고,
맑은 가을날 옛 기슭엔 달이 배 한 척 비추네.
서울 길의 붉은 먼지 꿈에서도 바라지 않고,
초록 도롱이 푸른 샷갓과 함께 살아간다네.
여기여차 노랫소리는 뱃사람의 흥취이니,
세상에 옥당(玉堂)* 있다고 어찌 부러워하리오.

- 설장수, 「어옹(漁翁)」 -

* 옥당: 문장 관련 업무를 담당한 관청의 별칭.

(다)

나는 성품이 또한 게을러 일찍이 동산을 가꾸지 않았고,
화훼(花卉)에 관심이 없었다. 동쪽 정원에 단지 복숭아나
무 한 그루와 잡목 한 그루가 있을 뿐이다. 모두 심지 않
았는데도 싹이 트고, 물을 주지 않았는데도 자랐으며, 호미
질하지 않았는데도 무성하게 된 것들이다. 바야흐로 춘삼
월에 복숭아꽃이 막 피어났는데, 꽃잎이 곱고 꽃부리가 연
약하며 꽃술이 향기로웠다. 금으로 등글리고 옥으로 깎은
듯, 분칠을 열게 하고 연지를 길게 찍은 듯하였다. 잡목은
그 곁에 서 있는데, 가지나 잎도 볼 만한 것이 없고 꽃도
피지 않았다. 그저 이름도 모르는 나무일 뿐이기에 잡목이
라고 불렀다.

하루는 종 녀석이 화원에 가서 한참 바라보더니 복숭아나
무로 다가가 어루만지면서 주위를 서성였다. 다시 물을 주
고 흙을 복돋아 주고서 떠났는데, 잡목은 거들떠보지 않았
다.

내가 그 이유를 물으니 대답했다.

“지금 복숭아나무가 잎이 막 싹을 틔우고 꽃이 또 봉오리
를 맺으니, 그 열매가 익기를 기다리면 먹을 수 있을 것입
니다. 이 나무는 사람에게 정말 사랑스러운 데다가
장차 이익까지 주게 됩니다. 저 잡목은 꽃도 잎도 볼 것
이 없고, 과실도 먹을 것이 없는 데다가, 그 뿌리가 굳세
고 가지가 큼니다. 뿌리가 길게 뻗으면 지맥을 막아 복숭
아나무가 번식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크면 햇볕을 가로막
고 방해하여 양기(陽氣)를 소모하게 되니 복숭아나무가 번
창하여 무성할 수가 없습니다. 베임을 당하지 않는 것도
다행인데, 우리가 지켜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말했다.

“그래, 그렇군. 하지만 아니야, 아니야. 너는 큰 도리를 듣
지 못했느냐? 하늘의 도(道)는 만물에 두루 은혜를 베풀어
서 비와 이슬이 상대를 가리지 않고 내리고, 군자는 남을
두루 사랑하여 다른 사람과 함께 인(仁)의 경지를 이룬단
다. 그러므로 태산의 언덕에 ㉡ 소나무, 계수나무가 가죽나
무, 상수리나무와 함께 자라고, 달인(達人)의 문하에 어진
이와 어질지 못한 이가 같이 있게 되지. 복숭아나무와 잡
목은 예쁘다는 점과 못생겼다는 점, 특이하다는 점과 평범
하다는 점에서 정말로 차이가 있지. 하지만 똑같이 천지의
기를 받아 태어났고, 태어나서 또 마침 나의 동산에 심어
져 있구나. 사람이 하나는 보호하고 하나는 버린다면, 잡목
으로 태어난 존재가 더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느냐? 나는 내
화원에 있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라도 모두 그 사이에
행(幸)과 불행(不幸)이 있게 하고 싶지 않다. 너는 얼른
가서 가꾸어라.”

- 남공철, 「동원화수기(東園花樹記)」 -

정리

15.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창작의 동기가 되고 있다.
- ② 세속적 이익을 좇지 않는 삶의 자세가 나타나 있다.
- ③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④ 견디기 힘든 현실의 고통을 자연에 의지해 잊고자 한다.
- ⑤ 현재보다 나은 삶을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16.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주체와 객체가 전도된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인생관을 분명히 하고 있다.
- ② (나)는 색채의 선명한 대조를 통해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③ (가), (나)는 모두 설의적 표현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④ (가), (나)는 모두 정경 묘사와 정서의 표출이 어우러져 있다.
- ⑤ (가)는 (나)에 비해 청각적 심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17. (나)의 화자가 <보기>의 ㉠이라고 할 때,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강호(江湖)에서 살아가는 어부를 소재로 한 작품에서 ‘어부’는 고기잡이를 직업으로 하는 실제 어부, ㉠ **이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은자(隱者)**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 ① 화자는 자연을 교감과 소통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달’에 인격을 부여하여 자연과의 합일을 추구하는군.
- ② 화자는 고기잡이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가 아니기에 ‘배한 척’은 한가롭고 평화로운 생활을 나타내는 소재라고 볼 수 있겠지.
- ③ 화자는 자신이 긍정하는 삶을 ‘도롱이’ 입고 ‘삿갓’ 쓴 어부로 표상하고 있군.
- ④ 화자는 자신이 원하는 공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뱃사람의 흥취’를 느낄 수 있는 것이겠지.
- ⑤ 화자는 ‘옥당’이라는 공간과 거리를 둠으로써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역설하고 있군.

18. (다)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잡목의 심미적 가치는 인정하지 않되, 존재 가치는 인정하고 있군.
- ② ‘나’는 복숭아나무의 실용적 가치는 인정하되, 심미적 가치는 인정하지 않고 있군.
- ③ ‘중’은 잡목의 실용적 가치는 인정하지 않되, 존재 가치는 인정하고 있군.
- ④ ‘중’은 복숭아나무의 심미적 가치는 인정하되, 실용적 가치는 인정하지 않고 있군.
- ⑤ ‘나’와 ‘중’은 모두 잡목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있군.

1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는 모두 글쓴이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다.
- ② ㉠, ㉡는 모두 계절적 배경을 알게 해 주는 소재이다.
- ③ ㉠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사물이고, ㉡는 고통을 느끼게 하는 사물이다.
- ④ ㉠는 감흥을 자아내는 자연물을, ㉡는 어진 성품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 ⑤ ㉠는 향토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자연물을, ㉡는 강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를 의미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1년 수능

(가)
홍진(紅塵)에 묻힌 분네 이 내 생애 어떠한고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천지간 남자 몸이 나만한 이 많건마는
㉠산림에 묻혀 있어 지락(至樂)을 모를 것인가.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앞에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었
어라.

[A] 엇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細雨) 중에 푸르도다.
칼로 말아냈나 붓으로 그려냈다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사롭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겨워
소리마다 고태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이야 다를쏘냐.
- 정극인, 「상춘곡(賞春曲)」

* 수간모옥 : 몇 칸 초가집 * 울울리 : 우거진 속

(나)
[B] 뒷집의 술쌀을 꾸니 거친 보리 한 말 못 찻다
주는 것 마구 찢어 쥐어 밋어 피어 내니
여러 날 주렸던 입이니 다나 쓰나 어이리.

어와 저 백구(白鷗)야 무슨 수고 하느냐
㉢갈 숲으로 서성이며 고기 엿보기 하는구나
나같이 군마음 없이 잠만 들면 어찌리.

삼공(三公)이 귀하다 한들 강산과 바꿀쏘냐
조각배에 달을 싣고 뉘싯대를 흘던질 제
㉣이 몸이 이 청흥(淸興) 가지고 만호후(萬戶侯)*인들
부러우랴.

헛글고 싯근* 문서 다 주어 내던지고
필마(匹馬) 추풍에 채찍을 쳐 돌아오니
㉤아무리 매인 새 놓인다 한들 이토록 시원하랴.

[C]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積雪)을 다 녹이니
사면(四面) 청산이 옛 모습 나노매라
귀밑의 해묵은 서리는 녹을 줄을 모른다.
- 김광옥, 「율리유곡(栗里遺曲)」

* 만호후 : 재력과 권력을 겸비한 제후 또는 세도가.

* 헛글고 싯근 : 흐트러지고 시끄러운.

(다) ㉥굳이 내가 소유하지 않아도 즐기는 데 방해를 받
지 않는다는 것이 오로지 원림(園林)이나 누정(樓亭)뿐이
겠는가? 천하의 사물 가운데 그렇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원림이나 누정의 경우가 특별히 더 그런 것뿐
이다.

서울에서 수립 리 이내의 가까운 지역에는 사람들이 조성
한 별장과 농장이 많다. 어떤 것은 강가를 따라 있고, 어떤
것은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으며, 어떤 것은 산을 등지고

계곡에 걸쳐 있기도 하다. 제각기 멋진 풍경 하나쯤은 갖
추고 있다. 그러나 산수(山水)를 평가하고 논하는 사람들
이 걸핏하면 저쪽 경치를 들었다 이쪽 경치와 비교하면서
앞다퉈 제가 본 풍경을 자랑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정말
웃을 노릇이다.

빼어난 경관과 아름다운 풍경을 뽐내는 천하의 명소가 어
디 한두 군데에 불과하라? 또한 그 고정된 견해와 평가가
있겠는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보이는 풍경이 바뀌고,
지경(地境)의 변화에 따라 느낌이 달라진다. 또 같은 장소
라 해도 경관이 차이가 나고, 같은 풍경이라도 때에 따라
변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이 낫고 어느 것이
모자라다며 제각기 자랑하고, 어느 것이 뛰어나고 어느 것
이 뒤진다며 제각기 평을 내린다면, 이것은 맛 좋은 술에
게 소금처럼 짜지 않고 왜 맛이 좋으냐고 혼내는 격이요,
양고기와 돼지고기에게 채소와 과일처럼 담박한 맛을 내지
않고 왜 그렇게 기름진 맛을 내느냐고 화를 내는 격이다.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천하의 이름난 산과 빼
어난 승경(勝景)을 모조리 자기가 소유한 뒤에라야 비로소
흡족해 할 것이다. 그러면 작은 불거리에 구속되어 큰 불
거리를 놓치는 사람이 되거나 않을까?
- 박규수, 「범회문회서도원림」

정리

20.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자족감을 표출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색채의 대비를 통해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다)는 풍자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다)는 시간의 흐름을 통해 사물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21. <보기>를 참고할 때, ㉠~㉤ 중 ㉢의 관점과 거리가 먼 것은?

<보기>

(다)는 범희문이라는 사람이 화려한 저택을 거부하고 겸허한 삶을 살고자 했던 사연을 바탕으로 창작되었다. 작가는 세속적 소유를 거부한 범희문의 태도에 기대어 당대 사대부들의 삶에 드러난 속물적 태도를 비판한다. 나아가 대상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통찰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① ㉠ : 산림에 묻혀서 지락을 아는 것
- ② ㉡ : 물아일체 속에서 흥을 느끼는 것
- ③ ㉢ : 갈대숲을 서성이며 고기를 엿보는 것
- ④ ㉣ : 만호후를 부러워하지 않고 청흥을 느끼는 것
- ⑤ ㉤ : 구속에서 벗어나 시원함을 느끼는 것

22. [A]와 [C]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C]에서 봄은 모두 인간의 유한성을 상징한다.
 - ② [A]는 [C]와 달리 봄을 겨울과 대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③ [C]는 [A]와 달리 의인화를 통해 봄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A]의 봄은 흥겨움을, [C]의 봄은 서글픔을 불러일으킨다.
 - ⑤ [A]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C]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봄을 묘사하고 있다.

23.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촐하고 소박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②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자세가 드러나 있다.
 - ③ 농가와 자연을 분리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 ④ 공동체를 위한 헌신적 삶이 드러나 있다.
 - ⑤ 숭고한 삶에 대한 지향이 드러나 있다.

24. ㉠와 같은 사람의 태도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휴양림을 늘 곁에 두고 보고 싶으니 집에 작은 정원을 만들어야겠어.
 - ② 주말에 지리산에 갔는데 갈 때마다 모습도 다르고 느낌도 달라서 참 좋았어.
 - ③ 가족 여행 때 다녀온 강릉 경포대의 진면목을 알려면 「관동별곡」을 읽어야 해.
 - ④ 단풍은 설악산이 최고라 하니 단풍을 구경하려면 당연히 설악산으로 가야 해.
 - ⑤ 내가 한라산을 가 보고 싶은 이유는 유명한 산악인들이 추천하는 명산이기 때문이야.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5년 3월 B형

(가)

㉔ 홍진(紅塵)에 못친 분네 이 내 생애(生涯) 엇더하고

넛 사람 풍류(風流)를 미출가 못 미출가
천지간(天地間) 남자(男子) 몸이 날만흔 이 하건마는
산림(山林)에 못쳐 이서 지락(至樂)을 맛볼 것가
수간모옥¹⁾ 을 벽계수(碧溪水) 얹피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²⁾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어
서라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뛰여 잇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중(細雨中)에 프르도다
칼로 몰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스럽다

㉕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계워

소리마다 교태(嬌態)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興)이이 다들소나
< 중략 >

준중(樽中)이 뷔엿거든 날드려 알외여라
소동(小童) 아히드려 주가(酒家)에 술을 물어
얼운은 막대 집고 아히는 술을 메고
미음완보(微吟緩步)³⁾하야 시넷그의 호자 안자

㉖ 명사(明沙) 조흔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청류(淸流)를 굽어보니 썬오느니 도화(桃花)로다

무릉(武陵)이 갓갓도다 지막이 권 거이고
- 정극인, < 상춘곡 >

(나)

광영지(光影池)에서 서쪽으로 화살 한 번 쏘 만한 거리에
줄지어 있는 소나무와 어지러운 나무들을 지나가면 와룡폭
포가 있다.

폭포의 바닥은 다 돌이다. 돌은 난가대(欄柯臺)에서부터
일직선으로 퍼져 와룡담에 이르러 그쳤다. 그 사이는 백여
보 정도이다. 그 돌의 빛은 꽤 흰데 형체가 비록 누웠기는
하나 위쪽이 약간 높고 차례로 점차 낮아져서 손바닥을 옆
으로 드리운 것 같다.

폭포는 명덕동(明德洞)에서부터 시작하여 흘러나온다. 한
갈래는 남쪽으로, 한 갈래는 서쪽으로 흐르다가 돌에 이르
러 합류하는데, 화살처럼 빠르고 물병을 지붕에 거꾸로 얹
어 놓은 것처럼 급히 쏟아진다.

물이 흘러가다가 길을 가로막고 누워 있는 돌을 만나게
되면 떨어져 내리는 기세가 비로소 급하게 된다. 돌은 물
의 맹렬한 두들김을 견디지 못하여 가운데가 호박같이 되
었다. 구슬이 튀고 눈이 물 끓듯 세차게 일어난다.

그 넘쳐흐르는 나머지가 흩어져 연꽃이 되었으니 흔들리
며 움직여 맑고 깨끗하여 손을 씻어도 좋고 이를 닦아도
좋으며 빨래를 할 수도 있다. 물과 돌이 이에 이르러 비로
소 공을 들인 보람을 나타낸 것이다.

㉗ 여름철에 비가 크게 내리면 폭포는 부르짖고 성냄이
천둥 벵락같다. 그 기세는 돌을 걷어 가지고 달아날 것 같
다. 뿔뿔이 달리는 물방울이 사방으로 날아올라 소나무 가지

끝에 흰 무지개 같은 무리가 가끔씩 있어 매우 기이하고
장관이다.

옛날에는 양쪽 언덕에 걸쳐 정자가 있어 물이 난간 아래
로 흘렀는데, 이것이 거센 물결을 견디지 못하여 끝내 무
너진 지가 여러 해 되었다. ㉘ 지금도 남은 주춧돌 너댓 개
가 기울어지거나 혹은 선 채로 있어서 오히려 옛터를 알아
볼 수 있다.

나는 산에 살면서 할 일이 없다. 늦게 밥을 먹고 나면 커
다란 샷갓을 쓰고 새로 지은 학창의를 입고 막대기를 끌며
천천히 걸어간다. 연못가의 오래된 나무 밑에 자리를 잡고
앉아 『도덕경』 몇 장을 읽는다.

어쩌다가 팔을 베개 삼아 들어지께 한잠 자노라면 산에
해가 기우는 것을 알지 못한다. 잠이 어슴푸레 깨어서 나
무 사이의 하늘을 쳐다보면 그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하늘
빛이 보인다. 꽤욱 소리 같은 바람 소리가 귀에 가득하고,
저녁 새가 가지를 들며 날아 지저귀는 것이 들릴 뿐이다.

이때 나의 가슴속엔 한 가닥의 생각도 없다. 마음이 화려
하여 내가 나를 잊는다. 어찌 연못과 같은 사물에 노니는
것이겠는가. ㉙ 나는 하늘에 노니는 것이지, 세속의 사물에
노니는 것이 아니다.

- 채제공, < 와룡폭포기 >

- 1) 수간모옥: 몇 칸 초가집. 2) 울울리: 우거진 숲.
- 3) 미음완보: 작은 소리로 읊으며 천천히 걸음.

정리	
----	--

25.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대상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자연과 인간사를 대비하여 자기반성의 계기로 삼고 있다.
- ③ 풍자의 기법을 활용하여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 ④ 대상을 관찰하여 양면적 속성을 포착하고 있다.
- ⑤ 계절의 변화 과정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2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청자에게 묻는 방식을 통해 화자 자신의 생활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화자의 정서와 조응하는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흥취를 환기하고 있다.
- ③ ㉢: 시냇물을 바라보며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④ ㉣: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⑤ ㉣: 과거를 회상하며 지나온 삶에 대한 후회를 드러내고 있다.

27. <보기>의 관점에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자연미를 체험하는 방식에는 ‘유거(幽居)’와 ‘탐승(探勝)’이 있다. 유거는 작가가 은거하는 일상적인 생활 공간 주위를 노닐며 즐기는 방식이고, 탐승은 작가가 거주지에서 멀리 떠나 여러 명승지를 거점으로 삼아 낯선 곳을 기행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유거가 나타난 작품들은 거주지나 그 주위의 자연을 제시하면서 일상의 생활 체험을 보여 주는데, 거주지 주위의 공간을 이상향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유거는 익숙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므로 심리적 만족감을 동반한다. <상춘곡>과 <와룡폭포기>는 이와 같은 유거를 보여 주는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① [가]의 ‘수간모옥’은 작가가 유거를 체험하는 거주지로 볼 수 있겠군.
- ② [가]의 ‘무릉이 갓갓도다’는 작가가 유거 속에서 거주지 주위의 공간을 이상향으로 인식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③ [나]의 ‘늘어지게 한잠 자노라면’은 작가가 유거를 통해, 익숙함을 느끼는 공간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가]의 ‘저 밭’과 [나]의 ‘연못’은 작가가 낯선 곳을 기행하기 위해 거점으로 삼은 명승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가]의 ‘흥(興)이이 다를소냐’와 [나]의 ‘마음이 화락하여 내가 나를 잇는다.’는 작가가 유거를 통해 느낀 심리적 만족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28.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1779년 2월 채제공은 명덕동으로 이사하였다. 갑작스럽게 벼슬에서 물러났지만 그는 이곳에서 산수를 즐기며 여유와 안정을 찾았다. 채제공은 와룡폭포 근처의 ‘난가대’를 특히 좋아했는데, ‘난가’가 신선의 땅이라는 뜻을 지녔기 때문이었다. 그는 신선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의 복장인 ‘학창의’를 입었고, 자주 읽으면 신선이 된다는 속설이 있는 『도덕경』을 탐독했다.

- ① 신선의 삶보다 자신의 삶이 낫다는 확고한 믿음을 보여 준다.
- ② 신선의 품격을 추구하다가 봉착하게 된 자신의 한계를 보여 준다.
- ③ 신선의 땅에서 역설적으로 깨닫게 된 속세에 대한 미련을 보여 준다.
- ④ 신선의 삶을 동경하며 생활하다가 느끼게 된 정신적 경지를 보여 준다.
- ⑤ 신선의 생활과 세속의 생활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자기 위안을 보여 준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4년 06월 B형 고2

산수간(山水間) 바회 아래 뽕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늙들은 온는다 훤다마는
 어리고 하얗*의 뜻의는 내 분(分)인가 호노라.
 <제1수>

보리밥 풋느물을 알마초 머근 후(後)에
 바헛긱 몃긱의 슬긱지 노니노라
 그나쁜 녀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랴.
 <제2수>

┌ 잔들고 혼자 안자 면 궤 흘 바라보니
 [A]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호랴
 └ 말씀도 우웁도 아녀도 묻내 도하 호노라.
 <제3수>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히 아르실샤
 인간만스(人間萬事)를 호 일도 아니 맛더
 다만당 드토리 업슨 강산(江山)을 덕희라 호시도다.
 <제5수>
 - 윤선도, 「만흥(漫興)」 -

* 하얗 : 시골 사람을 낮추어 이르는 말.

정리

29. 윗글의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조에 변화를 주어 시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
 - ② 점층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가 고조되고 있다.
 - ③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 ④ 대상을 다양한 관점으로 묘사하여 생동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대조적 의미의 시구를 사용하여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30. [A]에서 면 궤에 대한 화자의 인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족감을 주는 친화적 공간이다.
 - ② 인격 수양에 도움을 주는 공간이다.
 - ③ 살아온 지난 삶을 반성하는 공간이다.
 - ④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공간이다.
 - ⑤ 유교적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이다.

3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이 작품은 작가가 병자호란 때 임금을 모시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유배되었다가 풀려난 뒤, 고향인 전라도 해남에 은거 할 때 지은 연시조이다. 작가는 혼탁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정적들로부터 술하게 탄핵과 모함을 받아 수십 년 간이나 유배와 낙향을 반복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작가는 은둔의 삶을 추구하면서 순 우리말을 잘 살린 작품을 다수 창작하였다.

- ① 작가가 은둔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뽕집'과 '보리밥 풋느물'에서 짐작할 수 있겠군.
- ② '늙들'에는 작가를 탄핵하고 모함했던 정적들이 포함될 수 있겠군.
- ③ 작가가 유배와 낙향을 반복하면서 세상 물정에 어두워져 '하얗' 같은 존재가 되었겠군.
- ④ '알마초', '슬긱지' 등과 같은 순 우리말을 잘 살린 작품이군.
- ⑤ '녀나쁜 일'은 당시의 혼란한 정치적인 상황과 관련된 것이겠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6년 04월

(가) 봄바람이 문득 불어 청명이 가까우니,
 이슬비는 소리 없이 내려 저물도록 개지 않네.
 집 모서리 ㉠살구꽃은 활짝 피려 하여,
 두어 가지 이슬 머금은 채 사람을 향해 기울이다.
 - 권근, '춘일성남즉사(春日城南卽事)' -
 * 청명(淸明) : 이십사절기의 하나. 4월 5일 무렵.

(나) 옛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도화 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중(細雨中)에 푸르도다.
 칼로 말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사롭다.
 수풀에 우는 ㉢는 춘기(春氣)를 못내 겨워 소리마다 교
 태(嬌態)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興)이에 다들소냐.
 시비(柴扉)에 걸어 보고, 정자(亭子)에 앉아 보니,
 소요음영(逍遙吟詠)하야, 산일(山日)이 적적(寂寂)한데,
 한중진미(閑中眞味)를 알 이 없이 혼자로다.
 -정극인, '상춘곡'에서 -

정리	
----	--

32. (가)를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봄바람'은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야.
 - ② '두어 가지'와 '사람'은 상반된 의미를 지니고 있어.
 - ③ '이슬비'는 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시어야.
 - ④ '기울이다'에는 '살구꽃'에 관심을 보이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어.
 - ⑤ '청명'은 시간적 배경을, '집 모서리'는 공간적 배경을 나타내고 있어.

3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은 모두 화자가 소망하는 이상 세계를 표현한다.
 - ② ㉠, ㉡은 모두 부정적 현실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 ③ ㉠은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고, ㉡은 '시간의 멈춤'을 의미한다.
 - ④ ㉠은 화자의 '과거'를 나타내고, ㉡은 화자의 '미래'를 나타낸다.
 - ⑤ ㉠은 화자와 조화되는 대상이고, ㉡은 화자와 동화되는 대상이다.

34. <보기>에서 ㉣의 시적 기능과 가장 유사한 것은?

<보기>

세상에선 모두들 붉은 ㉢ 모란꽃만 사랑하여
 ㉣ 정원에 가득히 심고 가꾸네.
 누가 이 거친 초야에
 좋은 ㉤ 꽃떨기 있는 줄 알기나 하랴.
 어여쁜 모습은 연못 속의 ㉥ 달을 꿰뚫었고
 향기는 발두령 ㉦ 나무의 바람에 전하네.
 외진 땅에 있노라니 찾아주는 귀공자 적어
 아리따운 자태를 농부에게 붙이네.
 - 정습명, '석죽화' -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답지

1) ② [해설] ①의 '대구'는 (가)의 [C]와 (다)의 '화풍이~웃새 진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음보의 반복'은 4음보의 규칙적인 리듬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③의 '시각적 표현'은 (가)의 [A]와 (다)의 전반에 고루 나타나 있다. ④의 '영탄적 표현'은 (가)와 (나)의 종결 어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의 '지칭 대상이 동일한 다양한 시어'는 자연을 지칭하는 시어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시어는 (가)의 산수, 임천, 강산 등과 (나)의 녹수, 청류, 연하일회 등이다. 그러나 ②의 '구체적인 청자 설정'은 (가)에서는 구체적 청자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나)에 등장하는 '소동'은 술을 사온 과정을 진술하는 가운데 등장한 인물일 뿐 대화 상황에서 설정한 구체적 청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2) ④ [해설] 시어의 기능과 함축적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항이다. [C]의 '만승'은 부러움을 느끼는 대상이 아니라, 화자가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해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동원된 비교 대상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3) ③ [해설] ①의 '세속적 삶에 대한 미련', ②의 '자연을 통해 삶의 교훈 이끌어 내기', ④의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의 차이', ⑤의 '현실의 어려움을 자연 현상에 빚낸 표현' 등은 (나)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③의 '대상에 대한 화자의 흥취 드러내기'는 (나)의 화자가 자연의 빼어난 경관을 보며 술을 마시면서 마음껏 풍류를 즐기고 있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4) ③ [해설] (가)에서 '그 남은 여남은 일'은 세속의 일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속의 일과 관련된 벼슬길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연 속에 은거하고자 하는 작가 자신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은 자연 속에 있으면서 세속과는 관계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남은 여남은 일'을 금채동에서 산수를 즐기는 것으로 감상한 것은 정반대로 감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금채동의 공간을 뜻하므로 실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② '바위 끝 물가'는 그가 거쳐하면서 조선헌 놓은 정원의 사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④ '먼 뒀'가 임보다 반갑다는 것은 현실 속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자연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⑤ 자연은 현실처럼 다툼과 시비가 없는 곳이라는 뜻이다.

5) ③ [해설] (가)에서 '보리밥 푼나물'은 '산수', '띠집'과 아울러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을 상징하는 시어로 볼 수 있다. 이는 '알맞조' 먹는다는 구절, 실컷 노니는 '바위 끝 물가'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물질에 대한 작가의 절제와 자연에 대한 향유의 즐거움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오답풀이] ⑤ (가)의 셋째 수에서는 '먼 뒀'를 바라보는 즐거움을 '그리던 임이 오는' 상황과 대비하고 있다. 사랑하는 임, 그것도 그리워하던 임이 오는 것보다 홀로 자연을 즐기는 것이 더 좋다고 한 까닭은 종장의 '말씀 웃음'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임'은 비록 '말씀도 웃음도' 있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못한 것이다. 이를 <보기>와 연결하여 해석해 보면, 변신을 거듭하는 현실 정치와 그에 따라 표류하는 인간에 대한 반발 의식이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6) ⑤ [해설] (나)에서 '나'는 자신의 가난을 '명'으로 받아들이며, 이러한 자신의 삶에 '설은 뜻'은 없다고 하였다. '강호'에서의 단사표음을 자족하며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7) ⑤ [해설] <보기>에 의하면 (가)의 [A]는 '기-서-결'의 시상 전개를 변용한 '긴장 조성-긴장 고조-긴장 해소'로 설명할 수 있다. 초장에 보이는 '나'의 행위는 하나의 문제 상황이 되어, 긴장을 조성한다. '나'의 행위와 그에 담겨 있는 '뜻'을 두고 '남'들이 웃음으로써 그 긴장은 고조된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를 '어리고 향암'이라고 하면서도 그것이 '분'에 맞다고 하여 '나'의 뜻과 행위를 포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긴장을 해소하고 있다. 이는 '나' 그리고 '나'의 '뜻'과 그것을 모르는 '남' 사이의 갈등을 '분수'를 들어 '나'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으로도 볼 수 있다.

8) ④ [해설] (가)에는 백화가 만발한 화창한 봄날 산의 경치를 즐기는 화자의 흥겨움이 잘 드러나 있고 (나)에는 자연과 더불어 한가롭게 유유자적하면서 살아가는 흥겨운 삶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두 작품은 모두 '자연에서 비롯된 화자의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에 부합한다.

9) ④ [해설] (가) 시에는 역설적인 표현이 보이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거저 증천 → 원산 → 태산(기암) → 장송 → 폭포'로 이어지는 시선의 이동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암은 층층 / 장송은 낙락', '이 골 물이 주루룩 / 저 골 물이 쉼쉴' 등에서 대구를 통한 리듬감을 느낄 수 있다. ③ 의인법(장송은 ~ 춤을 춘다), 직유법(수정렴 드리운 듯, 은옥같이 흘러지니) 등을 통해 자연의 시각적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⑤ '펼펼펼, 우줄우줄, 팔팔, 주루룩, 쉼쉴, 으르렁' 등의 고유어뿐 아니라 '첩첩, 층층, 낙락' 등 한자어로 된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여 대상의 동적 이미지를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10) ③ [해설] '몰려남'은 현실적으로 정쟁에서 밀려나거나 임금의 부름을 받지 못하는 등 현실적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화자는 그런 외적인 이유를 내세우지 않고 '성이 게으르'다는 것을 표면적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몰려남이 몇몇하지 못하다는 진술은 시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11) ㉠ ⑤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 <제1수>를 보면, '하는 일이 무엇이고'에 대한 물음에 '이 중에 우국성심은 풍년을 원하노라.'라고 답하고 있어 자문자답의 방식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풍년에 대한 기원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화자의 안타까움을 부각시킨다고는 볼 수 없다. ㉢ ① <제2수>의 '앞집의 쟁기 잡고 뒷집의 따비 내며'와 <제5수>의 '밤에는 새끼를 꼬고 낮에는 띠를 베어'에 나타난 대구법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② <제3수>의 '어사와 입립신고(粒粒辛苦) 어느 분이 아실까.'에 나타난 설의법을 활용하여 농사일의 어려움에 대한 깨달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제4수>의 '이 밖에 천사만중(千駟萬鍾)을 부러 무엇하리오.'에는 부귀영화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삶의 깨달음이, <제8수>의 '이 중의 즐거운 뜻을 일러 무엇하리오.'에는 전원에서의 삶에 대한 깨달음이 나타나 있다. ③ <제5수>의 '초가집 잡아 매고 농기(農器) 줌 손 보아라', <제7수>의 '배고는 농부들을 진시(趁時)에 먹여라'와 같이 명령형의 문장을 활용하여 구체적 행동을 지시하고 있다. ④ <제2수>의 '농인이 와 이르되 봄 왔네 밭에 가세'와 같이 청유의 방식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행동을 이끌어 내고 있다.

12) ㉢ ④ [출제의도] 시의 구조에 따라 이해하기 ㉣ [C]에서의 <제6수>와 <제7수>에는 시선의 이동이 두드러지지 않고 <제8수>의 초장에는 '풀 끝에 이슬 맺힌다'는 내용을 통해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시선의 이동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C]에서는 농촌의 일상을 드러내고 있어 각 수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① [A]는 '서사'로 일 년의 풍년을 바라보고 있는

며 [B]에는 사계절의 시간이, [C]에는 하루 동안의 시간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A]는 [B]와 [C]의 시간을 통해 실현하고 싶은 풍년이라는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B]에는 사계절의 흐름에 따라 농사의 과정이 드러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봄에는 농사의 시작, 여름에는 땀 흘려 일하는 모습이, 가을에는 결실을 맺는 모습이 겨울에는 다음의 농사를 '준비'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③ [B]에는 '춘-하-추-동'의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며 <제5수>의 '내년에 봄 온다 하거든'을 통해 또 다시 내년 봄을 생각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B]에는 봄부터 겨울을 거쳐 다시 봄으로 이어지는 시간의 순환성을 바탕으로 둔 것이라 볼 수 있다. ⑤ [C]에는 '새벽-낮-저녁'으로 이어지는 하루 동안의 시간이 나타나 있으며 밭으로 일을 하러 나가자고 하는 새벽, 짐식을 준비하는 낮,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저녁의 모습을 통해 농촌의 일상을 나타내고 있다.

13) ㉠ ④ [출제의도] 다른 작품과 함께 감상하기 ㉡ ㉢는 화자가 농부들에게 먹이고 싶어 하는 것이므로 농부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는 '꽃나물'과 함께 소박한 음식을 나타내므로 화자의 소박한 삶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14) ㉠ ③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감상하기 ㉡ <제6수>를 볼 때,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화자의 모습은 드러나 있으나, 당시 유학자로서의 학문에 대한 열정은 드러나 있지 않다. ㉢ ① <제1수>에는 농촌에 생활하면서도 우국성심(憂國誠心)의 마음으로 풍년을 기원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제1수>에는 농촌에서 생활하면서도 나라를 생각하며 풍년이 오기를 바라는 사대부의 소임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제2수>의 종장에는 서로 상부상조하며 농사 일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제2수>에는 농민들과 상부상조하는 모습을 통해 농민과 삶을 공유하는 작가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제3수>의 종장에는 전원에서의 체면을 바탕으로 노동의 어려움을 인정하는 작가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제4수>는 수확한 곡식을 보고 기뻐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전원에서 생활했던 작가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5) ② [해설] 세 작품에서 그려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은 모두 세속적인 삶의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 (가)의 화자는 부귀공명을 꺼리며, 청풍명월의 자연을 벗삼고 있고, 단표누항의 소박한 삶에 만족하고 있다. (나)의 화자 역시 세속적 삶과 명을 멀리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고 있는 어부이지만 자신의 삶에 만족감을 드러낸다. (다)는 실용적인 복숭아나무나 아무 쓸모없는 잡목이나 모두 생명을 가진 똑같은 것으로 대하고 있기에, 세속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

[오답피하기] ① 어느 작품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③ (나)에서 자연의 이미지와 인간의 세속적 삶의 대비를 통해 주제의식이 강조되고 있다. ④ 화자나 글쓴이가 현실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작품은 없다. ⑤ 세 작품의 화자 및 글쓴이는 자신의 현실적 삶에 만족하고 있다.

16) ⑤ [해설] (가)에서는 화자가 봉두에 올라 멀리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곳에서 시각적 이미지가 강하게 느껴진다. 반면에 (나)에서는 화자가 살고 있는 자연 풍경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와 더불어 '노랫소리'의 청각적 이미지로 뱃사람인 화자의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공명도 날 꺼리고 부귀도 날 꺼리니'라 했으나, 사실 부귀공명이 주체이기보다는 화자가 이러한 것들을 멀리한다는 것이기에 주체와 객체가 전도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② (나)에서 어부의 삶을 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은 푸른색의 이미지로, 세속적 삶의 모습은 붉은 색의 이미지로 대비되어 있다. ③ (가)와 (나) 모두 마지막을 의문 형태로 마무리하고 있지만, 이는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고자 하는 설의적 표현이다. 그러므로 (가)에서는 '이만하면 만족한다.'로, (나)에서는 '부러워하지 않는다.'로 읽어내야 한다. ④ (가)에서는

봉두에 올라서 바라보는 풍경과 더불어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는 화자의 정서가 표출되어 있다. (나) 또한 안개 낀 호숫가와 배를 비추고 있는 달빛의 풍경과 더불어 세속을 멀리하겠다는 화자의 정서가 함께 드러나 있다.

17) ① [해설] <보기>는 (나)의 화자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지 그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 준다. 즉, (나)의 화자는 고기잡이를 직업으로 하는 어부가 아니라, 은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어부라 했다. 그러므로 (나)에서의 자연은 화자와 교감과 소통의 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나)에서 달이 배를 비추고 있는 풍경은 화자가 살고 있는 어촌의 평화로운 풍경을 보여줄 뿐이지, 달에 인격을 부여한 표현은 아니다.

18) ① [해설] (다)에서 '나'는 복숭아나무만을 가꾸고 잡목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종을 나무란다. 종은 복숭아나무가 꽃도 좋고 열매까지 주는 이익의 대상으로 보았지만, 잡목은 미관상으로도 볼 것이 없고, 해를 줄 수도 있는 것이라 판단했다. 하지만 '나'는 복숭아나무이든, 잡목이든 모두 나름대로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기에, 종에게 잡목도 가꾸라 명령한 것이다.

[오답피하기] ②, ④ '나'와 '종'은 모두 복숭아나무의 실용적 가치뿐만 아니라 심미적 가치 또한 인정하고 있다. ③, ⑤ '종'은 잡목의 실용적 가치뿐만 아니라 존재 가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19) ④ [해설] (가)의 화자는 흥에 겨워 ㉠를 손에 들고 산에 올라간다. 그리고는 산 위에서 마을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풍경에 심취해 있다. 그러므로 ㉡는 화자의 감흥을 자아내는 자연물이라 할 수 있다. ㉢는 (다)의 글쓴이가 복숭아나무나 잡목이나 같은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예로 든 대상이다. 즉, ㉣는 뒤에 이어지는 '가족나무, 상수리나무'와 대비되는 대상이고 이어지는 문장에서 의미를 추리해 보면 '어진 이'를 대변하는 것이다. '가족나무, 상수리나무'는 '어질지 못한 이'를 대변하는 것이다.

[오답피하기] ② 두견화는 봄의 계절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0) ① [해설] (가)에서는 '물아일체어니 흥이야 다들쏘냐.'라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나)에서는 3수의 '이 몸이 이 청흥을 가지고 만호후인들 부러우랴.'라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자연에서 느끼는 만족감을 각각 드러내고 있다.

21) ③ [해설] (나)의 2수는 당대의 정치적 상황을 풍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고기'를 탐하는 '백구'는 권력을 탐하는 속된 정치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 자연을 즐기는 마음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피하기] ①, ②, ④, ⑤ ㉡는 소유하지 않고 자연을 즐기는 자세를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산림에 묻혀 지락을 아는 것', '물아일체 속에서 흥을 느끼는 것', (나)에서 '만호후를 부러워하지 않고 청흥을 즐기는 것', '(벼슬살이의) 구속에서 벗어나 시원함을 느끼는 것' 등은 모두 세속적 소유를 거부하고 속물적 태도를 비판한 범희문의 가치관과 통한다.

22) ④ [해설] [A]에는 꽃 피고 새 우는 봄의 정경 속에서 흥에 겨운 화자의 정서가 잘 드러나 있어 흥겨움을 불러일으킨다. 이에 반해 [C]에는 눈이 녹아 푸른색을 되찾아가는 봄의 풍경과 달리 늪을 탄식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어 서글프게 느껴진다.

23) ① [해설] [B] 부분에는 가난하게 살아가는 화자의 생활 모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양반 사대부이기는 하나 물질적인 풍요와는 거리가

면 화자의 조출하고 소박한 삶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4) ② [해설] ⑥는 자연을 고정된 견해를 가지고 자기 관점에서 인식하고 평가하며 소유하려는 사람의 태도이다. ②는 그와 같이 고정된 견해를 갖지 않고, 변화하는 자연의 경치를 열린 마음으로 감상하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오답피하기] ① 자연을 소유하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예이다. ③ 자연에 대해 고정된 견해를 가지고 강요하는 예이다. ④, 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자연을 다른 것과 비교하여 바라보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5) ㉠ ㉡ [가]에서는 '도화행화, 녹양방초, 도화' 등 봄이라는 계절감을 부각하는 소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와룡폭포의 모습, 물줄기, 연못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26) ㉢ ㉣ ㉤ ㉥는 폭포의 거센 물줄기로 인해 사라진 정자의 옛터를 언급하는 내용으로, 지나온 삶에 대한 후회는 나타나지 않는다.

27) ㉠ ㉡ [가]의 '저 밭'은 화자가 '무릉'처럼 여긴 곳으로 탐승을 위한 거점 공간이 아니다. [나]의 '연못'도 작가가 노닐며 즐기는 일상적인 생활 공간이므로, 이 역시 탐승을 위한 거점 공간이 아니다.

28) ㉠ ㉡ <보기>로 볼 때 [나]의 작가는 벼슬에서 물러난 후 명덕동에 은거하며 신선의 삶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 ㉠은 작가가 은거지의 자연 속에서 신선의 삶을 동경하다가 느끼게 된 정신적 경지(천상의 즐거움)를 보여 주는 것으로, 작가가 무아지경의 만족감을 느끼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29) ⑤ [해설] 이 시에서 '뿌집, 보리밥, 풋늬물, 뫼, 강산' 등은 자연에 묻혀 살아가는 소박한 삶을 지칭하는 시어들이고, '그나쁜 녀나쁜 일, 인간만스'는 세속적 가치를 지닌 의미의 시어인데, 이를 활용하여 소박하고 한가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어조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점층적 표현으로 나타나는 정서의 고조는 없다. ③ 계절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④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다.

30) ① [해설] 화자는 혼자 앉아 바라보는 먼 산이 말을 하거나 웃음을 짓지 아니해도 그리워하던 '님'을 만난 것보다 즐겁다. 따라서 화자가 인식하는 '먼 뫼'는 가까이하고 싶은 친화적 공간이며, 이 공간에서의 삶은 화자에게 자족감을 준다. 화자는 자연에 묻혀 한가롭게 살면서 자연과 하나 되는 삶에서 스스로 만족감과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남들'의 세속적인 가치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의연하게 자신의 신념대로 자연에 의거하는 삶을 받아들이고 있다.

31) ③ [해설] <보기>에는 작가가 수십 년 간이나 세속에서 정적들로부터 탄핵과 모함을 받아 고충을 겪은 뒤에 세속적 삶에 염증을 느껴 은둔의 삶을 추구했음이 나타나 있다. '하암'은 화자가 자신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이다. 유배와 낙향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세상 물정에 어두워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답풀이] ① 은둔의 삶은 자연 속에서 한가롭고 소박하게 지내는 것과 관련이 있으므로 '뿌집, 보리 밥 풋늬물'에서 유추할 수 있다. ② '늬들'은 화자와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을 이므로 정적들의 일부가 포함될 수 있다. ④ 순 우리말의 아름다운 묘미는 '알마초, 슬크지' 등과 같은 어휘에서 발견할 수 있다. ⑤ '너나쁜 일'은 세속적인 부귀영화를 비유하므로 화자가 겪은 정치적 혼란 상황과 관련이 있다.

32) ② [해설] '봄바람'은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고(①), '이슬비'는 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②), '기울이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③), '청명'은 시간적 배경을, '집 모서리'는 공간적 배경을 드러낸다(⑤). 그러나 ④는 '두어 가지와 사람이 상반되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호응하는 관계로 보아야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33) ⑤ [해설] (가)의 '살구꽃'은 '사람을 향해 기울이다'를 통해 화자가 자연인 매화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대상이며, (나)의 '도화 행화'는 '물아일체(物我一體)'의 '물(物)'에 해당하므로 '도화 행화'가 화자와 동화를 이루는 대상이라고 한 ⑤의 진술은 적절하다.

34) ③ [해설] '새'와 '꽃떨기'는 모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으로서 (나)의 '새'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기능을 하는 소재이며, <보기>의 '꽃떨기(㉠)'도 화자의 소외감이나 외로움이라는 정서를 드러내는 기능을 하는 소재이다. 즉 '새'와 '꽃떨기'는 감정 이입의 대상으로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는 점이 유사하다.